

현대 한국 漢字音 韻母 탐색*

— 현대 한어 ‘-uŋ’·‘-yŋ’음을 대상으로 —

李 春 永**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uŋ’·‘-yŋ’품의 어음변천 및 |
| II. ‘-uŋ’·‘-yŋ’품의 유래 | 한국 한자음 반영 |
| | IV. 결 론 |

I. 들어가는 말

고대 한국인들이 이웃나라인 중국의 漢字를 필기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漢字音의 유입과 한국 어음에 대한 영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중국 한자음의 최초 유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존 자료로는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으나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어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지고 있다. 李基文은 신라어 어휘에서 중국 한자음의 영향을 분석해 내었으며,¹⁾ 崔愛玲은 일부 한국어 어휘의 어원을 중국 상고음(周·秦·兩漢: BC 12C~AD 3C)에서 찾아내었다.²⁾ 중국 한자음의 한국유입 및 그 영향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어의 고음 및 어음변천과정 연구에 있

* 이 연구는 200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조교수.

1) 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東亞出版社, 1991.8), 352-369쪽.

2) 崔愛玲, <中國 古代 音韻學에서 본 韓國語 語源 問題>, 《東方學志》(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90), 309-337쪽.

어 중국 방언과 더불어 한국 한자음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 어음변천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국의 고음과 어음변천 과정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高本漢(B.Karlgren)은 일찍이 《中國音韻學》에서 한어 中古音의 音值를 擬音함에 있어 한국 한자음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였다. 中國 四川 師範大學 周及徐는 <韓語與上古漢語對應詞舉例>에서 한국어와 中古 및 上古한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어에 나타나 있는 上古한어 성분을 분석하였고³⁾, 吳世駿의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에서는 한국 한자음 자료를 이용하여 1等운과 2等운의 音值를 분석해 내었다.⁴⁾ 그 외에도 한국어의 중성(반침) ‘ㄱ’·‘ㄷ’·‘ㄴ’으로 한어의 入聲字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어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어음체계와 音值는 각각의 내·외부적인 환경과 영향 속에서 형성된 각자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언어를 하나의 각도나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 한어의 특정 어음의 유래와 그 변천과정을 토대로 통사적인 어음변천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하다면 두 언어의 상호 영향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廣韻》‘東’⁵⁾·‘冬’·‘鐘’·‘庚’·‘耕’·‘清’·‘靑’·‘登’운 일부 글자들의 운모를 연구대상으로 한어와 한국 한자음에서의 반영내용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자들의 上古音에서 현대음에 이르기까지의 병합과 분화과정 및 현대 중국 방언에서의 반영내용을 근거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어음내용과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 반영된 한어 운모의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역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3) 周及徐, <韓語與上古漢語對應詞舉例>(東亞人文學會 第10屆 國際學術大會 발표논문집, 2009.12), 212-213쪽.

4) 吳世駿,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 《聲韻論叢》(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92.5), 159-192쪽.

5)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平聲이 上聲·去聲을 포함한다.

데 목표를 둔다.

II. ‘-uŋ’·‘-yŋ’음의 유래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의 유래는 《廣韻》 ‘東’·‘冬’·‘鍾’ 세 韻의 대부분 글자들과 ‘庚’·‘耕’·‘淸’·‘靑’·‘登’ 다섯 韻의 일부 글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자들은 上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병합과 분화를 거쳐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으로 발음된다. 王力の 上古音 29部 분류에 의하면 東은 開口一等 글자와 鍾은자는 上古音 東部에 속한다. 東은 合口三等的 일부 글자는 ‘登’운자와 더불어 蒸部에 속하고, 일부 글자는 冬운자와 더불어 侵部에 속한다. ‘耕’·‘淸’·‘靑’ 세 운자는 모두 耕部에 속한다. 庚운자는 陽·唐운과 더불어 陽部에 속하나 東漢 이후 ‘耕’·‘淸’·‘靑’ 세 운의 글자들과 합병한다.⁶⁾ 《廣韻》 ‘東’·‘冬’·‘鍾’·‘庚’·‘耕’·‘淸’·‘靑’·‘登’운 글자들이 上古시대부터 발음상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의 上古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어음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⁷⁾	韻母의 변천과정 ⁸⁾									
韻	41聲類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제외	포함											
東	幫系 影母	기타	開口一等	ɔŋ	oŋ	oŋ	oŋ	oŋ	uŋ	uŋ	uŋ	uŋ	uŋ
	非系	기타	合口三等	ĩuəm ⁹⁾	ĩuŋ	ĩuŋ	ĩoŋ	ĩoŋ	ĩuŋ	ĩuŋ	uŋ	uŋ	uŋ
				ĩuəŋ ¹⁰⁾	ĩuəŋ	ĩuəŋ	ĩoŋ	ĩoŋ	ĩuŋ	ĩuŋ	uŋ	uŋ	uŋ
冬	幫系	기타	合口一等	uəm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6)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 6), 92-98쪽.

7)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497-523쪽 <歷代

鐘	非系 影母/ 去聲	影系(去聲 제외) 疑母 溪母(平聲) 群母(平聲)	開口三等	ĩɔŋ	ĩoŋ	ĩoŋ	ĩuŋ	ĩuŋ	ĩuŋ	ĩuŋ	ĩuŋ	ĩuŋ	yŋ
		기타	開口三等	ĩɔŋ	ĩoŋ	ĩoŋ	ĩuŋ	ĩuŋ	ĩuŋ	ĩuŋ	ĩuŋ	uŋ	uŋ
庚		見母(平聲)	合口二等	oɑŋ	oɑŋ	oeŋ	oeŋ	ueŋ	ueŋ	ueŋ	uŋ	uŋ	uŋ
		爲母(일부) 曉母 見母 固戛	合口四等	iuɑŋ	iuɑŋ	ĩueŋ	ĩueŋ	ĩueŋ	ĩueŋ	ĩuiŋ	ĩuŋ	yŋ	yŋ
耕			合口二等	oeŋ	oeŋ	oeŋ	oeŋ	ueŋ	ueŋ	ueŋ	uŋ	uŋ	uŋ
清		群母 曉母(去聲) ¹¹⁾	合口三等	ĩueŋ	ĩueŋ	ĩueŋ	ĩueŋ	ĩueŋ	ĩueŋ	ĩuiŋ	yŋ	yŋ	yŋ
青		見系 匣母(上聲)	合口四等	iuueŋ	iuueŋ	iuueŋ	iuueŋ	iuueŋ	iuueŋ	ĩuiŋ	yŋ	yŋ	yŋ
登			合口一等	uɑŋ	uɑŋ	uɑŋ	uɑŋ	uɑŋ	uɑŋ	uɑŋ	uŋ	uŋ	uŋ

위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른 경로의 어음변화과정을 거친 글자들도 보인다. 다음과 같다.

1. 東韻 合口三等 爲母 雄·熊, 溪母 穹·穹·躬, 群母 窮·窮 등의 글자

非系를 제외한 東韻 合口三等의 대부분 글자들이 元나라 이후 洪音 ‘-uŋ’음으로 발음되는 반면에, 東韻 合口三等 爲母 雄·熊, 溪母 穹·穹·躬, 群母 窮·窮 등의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여전히 細音 ‘-yŋ’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현대 중국 방언을 살펴볼 때 廣州와 陽江방언에서는 雄·熊·窮이 合口一等자 紅·洪·虹·翁 등과 함께 洪音 ‘-ɔŋ’음으로 발음되는 현상도 보이지만, 齊南(-yŋ)·西安(-yɔŋ)·太原(-yuŋ)·武漢(-ioŋ)·成都(-yɔŋ)·揚州

語音發展總表>에 표시한 上古音 開合四等到 근거한다.

- 8) 본 표의 내용은 王力の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를 근거로 하였다. 그 중 王力の 三等韻頭는 본 논문에서 ‘ĩ’로 표기하였다. 표의 내용에 있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주를 달아서 설명한다.
- 9) 上古 蒸部에 속했던 弓穹雄熊 등의 글자이다.
- 10) 上古 侵部에 속했던 宮躬窮中忠融蟲 등의 글자이다.
- 11) 去聲 夬·訶 등의 글자는 《廣韻》에서 休正切로 韻母가 開口三等자이나 《韻鏡》에서 合口三等에 놓여져 있어, 본고에서는 合口三等字로 판단한다.

(-ioŋ)·蘇州(-ioŋ)·溫州(-yoŋ)·南昌(-iuŋ)·梅縣(-iuŋ) 등지에서는 여전히 細音으로 발음되어 合口一等자와 구분된다.¹²⁾

2. 庚韻 平聲 爲母字 榮·嶸·嶸¹³⁾

庚韻 合口四等 上聲 爲母 永·咏과 去聲 爲母 詠·泳·營 등의 글자는 曉母 兄·見母 罔罔 등과 더불어 현대 한어에서 ‘-yŋ’음으로 발음되는데 반해, 平聲 爲母字 榮·嶸·嶸은 현대 한어에서 洪音인 ‘-uŋ’음으로 발음된다. 王力の 《漢語史稿》에서는 陽部 兄·永·咏의 上古에서 中古까지의 어음변천과정을 ‘iwaŋ’→‘iweŋ’로 의음하고 耕部 榮의 어음변천 과정은 ‘iweŋ’→‘iweŋ’로 의음하고 있어¹⁴⁾, ‘榮’자가 중고시대에 細音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元나라 《中原音韻》에서 ‘榮’은 庸·傭·鄘 등의 글자와 같이 나열되어 있고¹⁵⁾, 明代 官話音系 韻書인 《韻略易通》(1422)과 《韻略匯通》(1642)에서도 細音을 유지하고 있어,¹⁶⁾ 榮·嶸·嶸이 洪音으로 변화한 구체적인 시기는 표현되지 않고 있다.

12)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73-374쪽 참고.

13) ‘榮’ 등의 글자는 《廣韻》에서의 ‘永兵切’로서 開口字 ‘兵’이 反切下字이지만, 《新校正切宋本廣韻》에서 ‘榮’자의 永兵切은 唇音 開口字로 喉音 合口字의 음을 달고 있다.(榮永兵切, 此以唇音開口切喉音合口)’고 교정하였다. (陳彭年 등 重修, 林尹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9年11月, 186쪽.)

14)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 6), 92쪽, 94쪽.

15) 陳新雄 編著, 《新編中原音韻概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26쪽.

16) 周美慧, <《韻略易通》與《韻略匯通》音系比較—兼論明代官話的演變與傳承> (國立中正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99.5), 137쪽에 ‘榮’자의 《韻略易通》에서의 音值를 ‘Ųyæŋ’로 擬音하고, 《韻略匯通》에서의 音值를 ‘Ųiuŋ’로 擬音하고 있다.

Ⅲ. ‘-uŋ’·‘-yŋ’음의 어음변천 및 한국 한자음 반영

현대 한어 ‘-uŋ’·‘-yŋ’음이 생성되기까지의 어음변천 과정과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의 반영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廣韻》 東·冬·鍾운

《廣韻》 東·冬·鍾 세 운 중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의 어음변천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廣韻》 東운 開口一等 글자와 鍾운자는 上古시기에 같은 東부에 속하나 南北朝 시대에 이르면 분화된다. 鍾운자는 冬운자와 합류하고, 東운 開口一等자는 上古 蒸部和 侵部に 속하던 東운 合口三等자와 합류한다. 五代에 이르면 東운 글자들은 冬·鍾 두 운에 합류된다. 또한 元나라에 이르면 ‘庚’·‘耕’·‘清’·‘靑’·‘登’운의 글자들이 ‘東’·‘冬’·‘鍾’운과 합류하게 된다.¹⁷⁾ 元代 周德清的 《中原音韻》에서 《廣韻》 東·冬·鍾 세 운의 글자들이 ‘東鍾’운으로 분류되어 있다. 陳新雄은 《中原音韻》의 ‘東鍾’운의 洪音を ‘-uŋ’으로 의음하고, 細音を ‘-iuŋ’으로 의음하고 있어¹⁸⁾, 《廣韻》 東·冬·鍾 세 운의 글자들이 당시에 완전히 합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洪音化현상이다. 東운 合口三等자가 元나라에 이르면 介音 ‘i’가 완전히 탈락하고 洪音 ‘-uŋ’으로 변하고, 鍾운 일부 글자들은 明清시기에 이르러 洪音 ‘-uŋ’으로 변한다. 元나라 《中原音韻》에서는 東운 合口三等자 ‘弓躬宮’ 등의 글자가 東운 開口一等 ‘工功攻公’ 등의 글자와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元나라 《古今韻會舉要》에서 東운 合口三等 ‘中崇終充’과 鍾운 ‘鍾醺衝’ 등의 글자가 이미 洪音으로 변하였다.¹⁹⁾ 그 외 明나라 存古音系韻書인 袁子讓의 《字學元元》에서도 일부

17)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 참고.

18) 陳新雄 編著, 《新編中原音韻概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30쪽.

冬	幫系	기타	合口一等	-uŋ	ᄃᆞᆯ
鍾	非系 影母(去聲)	疑 影(去聲 제외)群(平聲)溪(平聲)	開口三等	-yŋ	ᄃᆞᆯ
		喻(일부)禪(일부)			ᄃᆞᆯ
		曉			ᄃᆞᆯ
		精系 照娘見知 溪(일부)徹(일부)穿(일부)審(일부) 來(일부)日(일부)禪(일부)群(일부)	開口三等	-uŋ	ᄃᆞᆯ
		澄 徹(일부)穿(일부)			ᄃᆞᆯ
		日(일부)喻(일부) 審(일부)來(일부)			ᄃᆞᆯ

위의 표 내용을 근거로 현대 한국 한자음과 한어의 어음변천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 《廣韻》 東운 合口三等字와 冬운자의 운미

《廣韻》 東운 合口三等 弓穹雄熊 등의 글자는 한어 어음변천 과정 중에서 先秦시대에는 ‘-m’운미였으나 西漢시기에 이르러 ‘-ŋ’운미로 변하고, 이 후 현대 한어 어음까지 운미의 변화는 없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이 글자들은 ‘-ŋ’운미로 반영된다. 오늘날 廈門방언의 백화문과 潮州방언에서 熊자가 ‘him’으로 발음되어 ‘-m’운미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²²⁾

2) 《廣韻》 東운 開口一等字와 冬운의 합병

한어의 어음변천 과정에서 五代에 이르면 《廣韻》東·冬·鍾 세 운이 합병된다. 그 중 東운 開口一等字와 冬운자는 洪音(-uŋ)으로 발음되며, 이 글자들의 韻母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도 ‘-ᄃᆞᆯ’음으로 반영된다. 한어의 五代 이후 音值(-uŋ)와 합병 상황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는

22)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集》(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74쪽 참고.

다음과 같다.

206韻	《廣韻》 41聲類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제외	포함				
東	幫系 影母	기타	開口一等 -ɔŋ	-uŋ	ᄃᆞᆫ	東同公籠洪忽通烘.....
冬	幫系	기타	合口一等 -uəm		ᄃᆞᆫ	冬彤賓農宗鬆炆.....

3) 《廣韻》 東은 合口三等과 鍾운의 합병

한어 어음변천에서 鍾운자는 南北朝 시기에 合口‘-iɯŋ’음으로 변하고 五代시기에 이르면 東은 合口三等자와 합병되어 ‘-iɯŋ’음으로 발음된다. 鍾운은 南宋때 張麟之가 刊行한 《韻鏡》에서 ‘內轉第二開合’圖 3等到 나열되어 있으며, 孔仲溫은 《韻鏡》 ‘內轉第二開合’의 ‘開合’을 ‘合’으로 보았다.²³⁾ 또한 《七音略》에서는 ‘內轉第二輕中輕’圖 3等到 나열되어 있으며, 羅常培가 주장한 《七音略》의 ‘重’은 《韻鏡》의 ‘開’에 해당하고 ‘輕’은 《韻鏡》의 ‘合’에 해당한다는 분석²⁴⁾에 근거할 때 《七音略》의 鍾운자는 合口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중고음²⁵⁾을 반영하는 이들 等韻圖에서의 鍾운자가 合口로 배열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王力이 분석한 鍾운자의 合口로의 변화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국 현대 한자음에서 東은 合口三等字와 鍾운의 일부 글자의 韻母가 ‘ᄃᆞᆫ’으로 발음되어 五代 시기 이후의 합병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3) 孔仲溫, 《韻鏡研究》(臺北:臺灣學生書局, 1987.10), 72-73쪽.

24) 羅常培, <釋重輕>, 《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北京:中華書國, 1963.9), 80-81쪽.

25) 竺家寧은 《聲韻學》에서 《韻鏡》의 底本이 晚唐에서 五代 사이에 생겨났으며, 《韻鏡》과 《七音略》 두 等韻圖 모두 中古音を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竺家寧, 《聲韻學》, 臺北市: 五南圖書出版公司, 1992年7月), 246쪽.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東	日來喻	合口三等	-uŋ	ㄱ	戎菽狨駢融彤隆窿.....
鍾	曉 禪(일부)	開口三等	-yŋ		凶兇.....

4) 東韻 合口三等 爲母 雄·熊, 溪母 穹·芎·躬, 群母 窮·窮 등의 반영

東韻 合口三等的 대부분 글자들은 元대에 이르러 介音 ‘i’가 사라지고 洪音 ‘-uŋ’으로 발음되었으며 현대 한어에서도 ‘-uŋ’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爲母 雄·熊, 溪母 穹·芎·躬, 群母 窮·窮 등의 글자는 현대 한어에서 細音 ‘-yŋ’음으로 발음된다. 이 글자들의 韻母가 한국 한자음에서 반영된 독음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제외	포함				
東	기타	爲母 群母	合口三等	-yŋ	ㄱ	雄熊穹芎躬窮窮窮.....

한국 한자음에서 이 글자들은 대부분의 東韻 合口三等자와 더불어 洪音 ‘ㄱ’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어의 어음변천과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현대 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陽江방언에서 雄·熊·窮 등의 글자가 東韻 開口一等 紅·洪·鴻·虹 등의 글자나 東韻 合口三等 弓·躬·宮 등의 글자와 같이 洪音 ‘-uŋ’으로 발음되고 있다.²⁶⁾

5) 鍾韻 開口三等 顯邕蛩𪔐擁 등의 반영

《廣韻》 鍾韻 開口三等자의 韻母는 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合口 ‘-iŋ’

26)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71-374쪽 참고.

음으로 변화였고, 그 중 일부 글자들이 현대 한어에서 ‘-yŋ’음으로 발음되고 일부 글자는 ‘-uŋ’음으로 발음된다. 현대 한어에서 ‘-yŋ’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 韻母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의 반영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鐘	疑 影(去聲 제외) 群(平聲)溪(平聲)	開口三等	-yŋ	ᄒᆞᆫ	顛邕蛭𪔐擁.....
	喻(일부)			ᄒᆞᆫ	庸鰯勇用.....
	曉 禪(일부)			ᄒᆞᆫ	凶兇.....

위의 표에서 顛邕蛭𪔐擁 등의 글자는 한국 한자음에서 洪音으로 반영되어 한어의 어음변천과는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廣州·陽江방언에서는 擁자의 韻母가 洪音 ‘-uŋ’음으로 발음될 뿐만 아니라, 庸·勇·用·凶·兇 등 글자의 韻母도 모두 洪音 ‘-uŋ’음으로 발음된다.²⁷⁾

6) 洪音化

《廣韻》 東운 細韻자와 일부 鍾운자는 어음변천과정에서 介音 ‘i’가 탈락하고 洪音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王力の <歷代語音發展總表>에 의하면 東운 合口三等자는 元나라때 洪音 ‘-uŋ’음으로 변천이 완성되고, 鍾운의 일부 글자는 明清시기에 洪音 ‘-uŋ’음으로 변천이 완성된다. 한어에서 洪音화된 東운 細韻字와 일부 鍾운자의 韻母가 한국 한자음에서 반영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7)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集》(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74-375쪽 참고.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제외	포함				
東		幫系·敷(去聲)	合口三等 -ɦuəm	-əŋ	ᄒ	蓍夢賄.....
		非系(平聲)			ᄒ	馮風豐諷.....
		照系(일부)		-uŋ	ᄒ	終銃.....
		照系(일부)			ᄒ	衆充.....
		精系				嵩.....
		莊系				崇.....
		見系				弓.....
		知系				中蟲忡仲.....
		日來喻			ᄒ	戎融隆.....
鍾	影母 (去聲)	非系	開口三等 -ɦɔŋ	-əŋ	ᄒ	封逢峯奉捧撻俸.....
		精系				
		照		-uŋ	ᄒ	松從縱𧈧慄悚頌.....
		穿(일부)審(일부)禪(일부)				鍾墮腫種.....
		見				恭恐拱共供.....
		溪(일부)群(일부)				醢傭寵塚.....
		娘知				禮隴冗.....
		徹(일부)				
		來(일부)日(일부)				
		澄		ᄒ	ᄒ	衝重鍾.....
徹(일부)穿(일부)	龍春容茸儻.....					
		ᄒ				

東운 細音字의 韻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ᄒ’·‘ᄒ’·‘ᄒ’의 발음으로 반영되고, 鍾운자의 韻母는 ‘ᄒ’·‘ᄒ’·‘ᄒ’음으로 반영되었다. 왕력 <歷代語音發展總表> 음운변천 과정과 비교할 때, 東운 細音의 일부 글자가 반영된 洪音 ‘ᄒ’·‘ᄒ’은 元대에 완성된 東운 合口三等자의 洪音化가 반영되었으며, 鍾운 일부 글자가 반영된 洪音 ‘ᄒ’·‘ᄒ’은 明清시기에 완성된 鍾韻 開口三等자의 洪音化 현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東운 일부 글자가 ‘ᄒ’으로 반영되고 鍾운 일부 글자가 細音 ‘ᄒ’음으로 반영되어 한어 어음변천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방언에서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厦門방언에서는 戎融隆容茸 등 글자의 韻母가 ‘-iɔŋ’음으로 발음되며, 福州방언에서도 戎融隆容茸 등 글자의 韻母가 ‘-yŋ’음으로 발음되어 細音의 흔적이 남아 있다.²⁸⁾

위의 표에서 두 언어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의 하나가 唇音字의 어음변천이다. 왕력 <歷代語音發展總表> 음운변천 과정에 의하면 東은 唇音字는 元代에 이르러 洪音(-uŋ)으로 변하고 明清을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야 ‘-əŋ’음으로 변한다.²⁹⁾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唇音의 ‘ㄹ’·‘ㄴ’ 두 음은 元明清대의 ‘-uŋ’음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鍾은 開口三等 非系 글자들 역시 元代에 洪音(-uŋ)으로 변하여 明清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러서야 ‘-əŋ’음으로 변한다.³⁰⁾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ㄹ’음은 역시 元明清대의 ‘-uŋ’음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南昌방언과 梅縣방언에서 夢風楓瘋豐封峰鋒蜂馮逢 등의 글자가 ‘-uŋ’음으로 발음되며, 福州방언에서도 風楓瘋豐封峰鋒馮 등의 글자가 ‘-uŋ’음으로 발음되어 元明清대 音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³¹⁾

2. 《廣韻》 庚·耕·清·青·登운

《廣韻》 庚·耕·清·青·登운의 일부 合口字들도 현대 한어에서 ‘-uŋ’음이나 ‘-yŋ’음으로 발음된다. 王力 <歷代語音發展總表>의 음운변천 과정에 의하면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으로 발음되는 글자 중에서 淸운 合口三等字와 靑운 合口四等字는 先秦시기에 이미 합병되어 있었으며, 東漢때 이르면 庚운 合口四等字가 淸운 合口三等字 및 靑운 合口四等字에 합병되고, 庚운 合口二等字가 耕운 合口二等字와 합병된다. 隋唐시기에는 庚운 合口四等·淸운 合口三等·靑운 合口四等字와 庚운 合口二等·耕운 合口

2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74-375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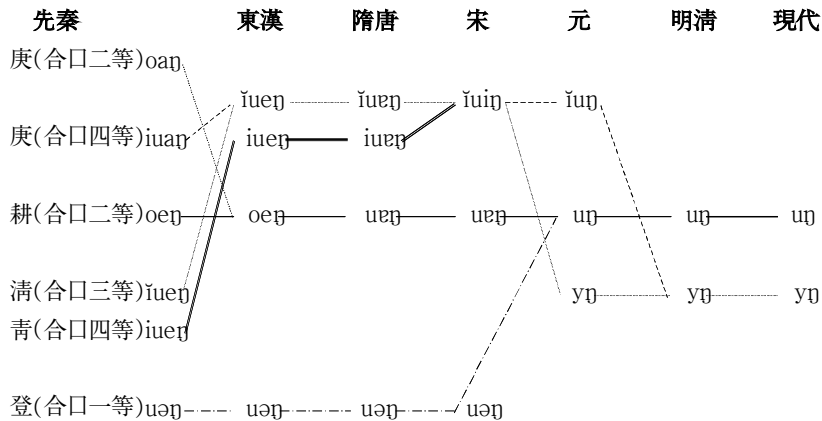
29)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516, 523쪽.

30)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519쪽.

31)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34-335쪽 참고.

二等字가 합병된다. 또한 元나라에 이르면 《廣韻》 庚·耕·清·青·登운 글자들이 東·冬·鍾운과 합병한다. 元나라 《中原音韻》에서 轟薨兄泓宏弘永 등의 글자들은 ‘庚青’운과 ‘東鍾’운에 동시에 귀속되어 있고, 肩觥肱瓊炯迥 등의 글자들이 ‘庚青’운에만 귀속되어 있어, 梗攝 合口呼와 撮口呼 글자들이 通攝에 합병되는 과도기를 반영하고 있다.³²⁾

《廣韻》 庚·耕·清·青·登운 合口字의 어음변천 내용을 王力の 擬音내용에 의거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³³⁾



《廣韻》 ‘庚’·‘耕’·‘清’·‘青’·‘登’ 중 현대 한어 ‘-uŋ’·‘-yŋ’음의 유래가 되는 글자들과 그 韻母의 현대 한국 한자음 반영은 다음과 같다.

32) 王力 著, 《漢語史稿》(北京: 中華書局, 1980.6), 190쪽.

33) 아래 표에서 선은 합병된 이후 音值 성격상 主流의 선을 따른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
206韻	41聲類			
庚	見母(平聲)	合口二等	-uŋ	ங
	曉母	合口四等	-yŋ	ㅇ
	見母 罔罔		-uŋ·-yŋ	
	爲母			
耕		合口二等	-uŋ	ங
清	群母	合口三等	-yŋ	ㅇ
	曉母(去聲)			
青	見系	合口四等	-yŋ	ㅇ
	匣母(上聲)			
登		合口一等	-uŋ	ங

위의 표 내용을 근거해 볼 때, 한국 현대 한자음에서는 隋唐시기의 《廣韻》 庚·耕·清·青 네 운 合口字의 합병이나 元대의 《廣韻》 庚·耕·清·青·登 다섯 운 合口字의 합병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어의 어음변천 과정과 한국 현대 한자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 《廣韻》 東·冬·鍾 세 운과 登운 合口字의 합병

王力 <歷代語音發展總表>의 음운변천 과정에 의하면 현대 한어에서 '-uŋ'·'-yŋ'음의 기원이 되는 《廣韻》 '庚'·'耕'·'清'·'青'·'登'의 일부 글자들은 元나라 때에 이르러 《廣韻》 東·冬·鍾 세 운에 합류된다. 《廣韻》 東·冬·鍾 세 운에서 현대 한어음이 '-uŋ'·'-yŋ'인 글자들의 韻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洪音 '농'·'궁'과 細音 '웅'·'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廣韻》 '庚'·'耕'·'清'·'青' 네 운 글자들의 韻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대부분 'ங'·'ㅇ' 두 음으로 반영되어 《廣韻》 東·冬·鍾운과 합병된 음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登운 合口一等字의 韻母는 한국 한자음에서 '농'·'궁' 두 음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 중 匣母 '弘'자의 운모만이 '궁'으로 반영되어

元나라 때의 《廣韻》 東·冬·鍾 세 운과의 합병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2) 《廣韻》 庚운 合口二等字와 耕운 合口二等字의 합병과 登운 合口一等 見母字

王力 <歷代語音發展總表>의 음운변천 과정에 의하면 《廣韻》 庚운 合口二等字와 耕운 合口二等字 중 현대 한어에서 ‘-uŋ’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은 東漢때 합병하여 현대한어에 이르기까지 같은 어음변천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 한자음에서 이 글자들의 韻母는 같은 ‘녕’음으로 발음되어 東漢 이후의 합병된 어음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상황과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庚	見母(平聲)	合口二等 -oɑŋ	-uŋ	녕	觥.....
耕	匣母	合口二等 -oɛŋ	-uŋ	녕	宏絃絃闊欲眩翹滋竝鉉眩.....
	曉母				轟翳掬匄鉤洵.....

그 외에도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登운 合口一等 見母字의 韻母가 ‘녕’음으로 발음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登	見母	合口一等 -uɛŋ	-uŋ	녕	鞞肱.....

이 글자들은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조선 시대의 운서 《東國正韻》(1447)·《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에서도 庚운 合口二等·合口二等 글자와 더불어 韻母가 ‘녕’음으로

반영되고 있다.³⁴⁾ 王力 <歷代語音發展總表>에 의하면 元대에 이르러 현대 한어 ‘-uŋ’·‘-yŋ’음의 기원이 되는 《廣韻》庚·耕·清·青운의 일부 合口字가 東·冬·鍾 세 운에 합병되고, 登운 合口一等자도 이 때 庚·耕·清·青·東·冬·鍾운과 합병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登운 合口一等字 韻母 ‘녕’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실마리는 중국의 일부 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明末清初에 浙江 嘉興府 秀水사람 陳蓋謨(1603~1678)과 그의 門人 胡邵瑛이 저술하여 康熙 54년(1714)에 완성한³⁵⁾ 存古音系韻書 《元音統韻》의 ‘肱’韻은 주로 庚운 合口二等字·耕운 合口二等·登운 合口一等자로 구성되어 있다.³⁶⁾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에서 登운 合口一等 見母자의 韻母가 庚운 合口二等·耕운 合口二等的 글자와 같이 ‘녕’음으로 반영된 것은 중국의 韻書나 한 시기의 실제 語音이 반영된 현상임을 추측할 수 있다.

3) 庚운 合口四等·清운 合口三等·青운 合口四等字의 합병

清운 合口三等字와 青운 合口四等字는 先秦시기에 이미 합병되었고, 東漢 때 이르면 庚운 合口四等字도 清운 合口三等·青운 合口四等字와 합병한다. 隋唐때에 이르면 이 글자들은 庚운 合口二等 및 耕운 合口二等字와도 합병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庚운 合口四等·清운 合口三等·青운 合口四等字의 韻母는 모두 같은 음인 ‘ŋ’으로 발음되나 庚운 合口二等 및 耕운 合口二等字의 韻母가 반영된 ‘녕’음과는 차이가 있다. 한어의 東漢 이후에서 隋唐 합병 전까지의 어음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현대 한어 ‘-uŋ’·‘-yŋ’음의 유래가 되는 글자들 韻母의 반영 상황과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4)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 369, 372, 380쪽 참고.

35) 鄭雅方, 《《元音統韻》音系研究》(臺北: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05.6), 18-23쪽.

36) 鄭雅方, 《《元音統韻》音系研究》(臺北: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05.6), 18-23, 184-185쪽.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한어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庚	曉母	合口四等 -iuæŋ	-yŋ	ㄹ	兄
	見母(일부)		-uŋ		罔罔
	爲母		-yŋ		榮螻螻 永祿詠泳……
清	群母	合口三等 -iueŋ	-yŋ	ㄹ	瓊瑩畏惺菴趨總……
	曉母/去聲 ³⁷⁾		-yŋ		復訶……
青	見系	合口四等 -iueŋ	-yŋ	ㄹ	局駟炯炯頰褻縻縻……
	匣母/上聲		-yŋ		迥同炯洞……

그 외에 주의할 점은 위 도표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庚韻 合口四等 上聲 爲母 永·祿과 去聲 爲母 詠·泳·營 등의 글자가 曉母·見母자와 더불어 현대 한어에서 細音 ‘-yŋ’음으로 읽혀지지만, 平聲 爲母字 榮·螻·螻은 어음변천과정에서 介音 ‘i’가 탈락하고 현대 한어에서 洪音 ‘-uŋ’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榮·螻·螻의 정확한 洪音化 시기는 알 수 없다. 이 글자들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다른 庚은 合口四等와 더불어 細音 ‘ㄹ’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榮자는 현대 중국의 西安방언(yoŋ)·太原방언(yuŋ)·武漢방언(ioŋ)·揚州방언(ioŋ)·蘇州방언(jioŋ)·溫州방언(jyoŋ)·南昌방언(iuŋ)·梅縣방언(iuŋ)·潮州방언(ioŋ) 등 지에서도 모두 細音으로 발음되고 있다.³⁸⁾

37) 去聲 復·訶 등의 글자는 《廣韻》에서 休正切로 韻母가 開口三等자이나 《韻鏡》에서 合口三等에 배열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合口三等字로 판단한다.

3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集》(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369쪽 참고.

IV. 결 론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로서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 특히 언어의 교류는 매우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어에서 ‘-un’, ‘-yn’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들의 어음변천 과정에 내용을 근거로 한국 한자음에 나타난 시대적 반영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현대 한국 한자음에 漢語의 각 시대별 어음내용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국 한자음에 나타난 중국 한자 어음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어어음변천과 현대 한국 한자음을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시대적 대응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西漢

일부 《廣韻》 東운 合口三等字와 冬운자는 先秦시대에 -m운미로 발음되다가 西漢시기에 ‘-ŋ’운미로 바뀐다. 현대 한국 한자음의 《廣韻》 東운 合口三等字와 冬운자에서는 西漢 이후의 ‘-ŋ’운미가 반영되고 -m운미는 소실되어 西漢이후의 어음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2. 東漢

1) 《廣韻》 庚운 合口二等字와 耕운 合口二等字는 東漢시기에 합병(-oen)하여 같은 어음변천을 거치게 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 중 庚운 合口二等과 耕운 合口二等 글자의 韻母가 동일한 ‘ŋ’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2) 淸운 合口三等字와 靑운 合口四等字는 先秦시기에 합병되었고, 東漢에 이르면 庚운 合口四等字도 淸운 合口三等·靑운 合口四等字에 합병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庚운 合口四等·淸운 合口三等·靑운 合口四等字의 韻母는 같은 음인 ‘ŋ’으로 발음되어 그 합병을 반영한다.

3. 五代

1) 《廣韻》 東운 開口一等字와 冬운은 五代에 이르러 洪音 ‘-uŋ’으로 합병한다. 東운 開口一等字와 冬운자가 현대 한국 한자음 일부 글자에서 ‘웅’음의 같은 음으로 반영된다.

2) 《廣韻》 東운 合口三等字와 鍾운자는 五代에 이르러 韻母가 ‘-iŋ’음으로 합병된다. 東운 合口三等字와 鍾운자가 현대 한국 한자음 일부 글자에서 ‘궁’음의 같은 음으로 반영된다.

4. 元

1) 《廣韻》東운 合口三等字의 元대에 완성된 洪音化(-uŋ) 현상이 현대 한국 한자음의 일부 글자에서 洪音 ‘궁’·‘웅’으로 반영된다.

2) 《廣韻》 東·冬·鍾 세 운과 澄운 合口자는 元대에 이르러 ‘-uŋ’음으로 합병한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東·冬·鍾 세 운 글자들과 澄운 匣母 ‘弘’자의 韻母가 같은 ‘궁’음으로 반영된다.

5. 明清

《廣韻》 鍾운 開口三等字의 明清시기에 완성된 洪音化(-uŋ) 현상이 현대 한국 한자음의 일부 글자에서 洪音 ‘궁’·‘웅’으로 반영된다.

그 외에 한어 어음변천과정과는 차이가 나는 현대 한국 한자음의 어음 반영현상이 존재하였다. 한어 어음변천과 차이가 나는 어음반영 현상들은 중국의 현대 방언이나 韻書에서 같은 현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의 방언은 각각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여 오늘날의 방언을 형성하였다. 그러기에 중국 古音성분 및 각 지역만의 독특한 어음발전체계를 포함한다. 韻書 또한 저자의 正音관념에 따라 古音이나 당시 표준어 및 방언의 성분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현대 방언과 韻書의 어음 체계는 중국의 어느 한 시대 한 지역의 實際音を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 한자음의 변천 및 발전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어 어음변천과정과는 차이가 나는 현대 한국 한자음 현상은 또한 한국 한자음의 어음변천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廣韻》 東韻 合口三等 爲母 雄·熊, 溪母 穹·芎·躬, 群母 窮·窮 등 글자들은 韻母는 현대 한어에서 ‘-yŋ’음으로 반영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洪音 ‘궁’으로 반영된다.

2) 《廣韻》 鐘韻 開口三等 顛邕蛭琤擁 등 글자들의 韻母는 현대 한어에서 ‘-yŋ’음으로 발음되지만,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洪音 ‘궁’으로 반영된다.

3) 《廣韻》 東韻 合口三等 戎融隆 등 글자의 韻母는 한어어음변천과정에서 洪音化되어 현대 한어에서 ‘-uŋ’음으로 발음되지만,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細音 ‘룽’으로 반영된다.

4) 《廣韻》 鍾韻 開口三等 龍春容茸隴 등 글자의 韻母는 한어어음변천과정에서 洪音化되어 현대 한어에서 ‘-uŋ’음으로 발음되지만,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細音 ‘룽’으로 반영된다.

5) 《廣韻》 庚韻 合口二等字와 耕韻 合口二等字의 韻母는 東漢시기에 합병(-oɛŋ)되고 한국 한자음에서도 ‘닝’음으로 그 합병이 반영되었다. 登韻자의 韻母는 元대에 이르러서야 庚韻 合口二等字·耕韻 合口二等字 및 일부 東·冬韻자들과 함께 ‘-uŋ’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登韻 合口一等 鞞肱 등의 글자는 庚韻 合口二等·耕韻 合口二等 글자와 같은 ‘닝’음으로 반영된다.

6) 《廣韻》 庚韻 合口四等 平聲 爲母字 榮·嶸·嶸의 韻母는 어음변천과정에서 洪音化되어 현대 한어에서 洪音 ‘-uŋ’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 글자들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기타 庚韻 合口四等와 함께 細音 ‘룽’으로 반영된다.

<參考文獻>

- 宋) 陳彭年等 重修, 林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9.11.
- 王力, 《漢語史稿》(新1版; 北京市, 中華書局), 1980.6.
-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5.
- 孔仲溫, 《韻鏡研究》(臺北: 臺灣學生書局), 1987.10.
-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6.
- 李基文, 《國語語彙史研究》(東亞出版社), 1991.8.
- 竺家寧, 《聲韻學》(臺北市: 五南圖書出版公司), 1992.7.
- 陳新雄 編著, 《新編中原音韻概要》(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 李添富, 《古今韻會舉要研究》, 臺北市: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1990.6.
- 賴金旺, 《字學元音音系研究》, 臺北市: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1.6.
-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
- 鄭雅方, 《〈元音統韻〉音系研究》, 臺北: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5.6.
- 崔玲愛, <中國 古代 音韻學에서 본 韓國語 語源 問題>, 《東方學誌》(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90.
- 周及徐, <韓語與上古漢語對應詞舉例>, 東亞人文學會 第10屆 國際學術大會 발표논문집, 2009.12.
- 周美慧, <《韻略易通》與《韻略匯通》音系比較—兼論明代官話的演變與傳承>, 國立中正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99.5.
- 吳世峻, <從朝鮮漢字音看一二等重韻問題>, 《聲韻論叢》(臺北市: 臺灣學

生書局) 1992.5.

羅常培, <釋重輕>, 《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北京: 中華書國), 1963.9.

<中文提要>

韓國與中國是鄰國, 自古以來有着歷史悠久的交流, 特別在韓國借用中國的漢字之後, 語音方面的交流和影響是不可避免的。因此分析漢語歷代語音變化過程時, 韓國漢字音是重要參考資料, 相反, 如果要了解韓國語音現象, 那麼漢語語音當爲重要線索。

本論文主要以現代漢語中發音爲‘-uŋ’或‘-yŋ’音的來源字做爲研究對象, 分析其從先秦到現代的音變過程, 並考察漢語語音變化在現代韓國漢字音中的反映內容。從考察中發現中國西漢、東漢、五代、元、明清等各時代的語音變化現象在現代韓國漢字音之中的反映, 從中發現和漢語語音變化過程不同的一些內容而此類現象與韻書的韻部歸類和現代中國方言有類似與類同。韻書的語音系統和方言包括古音、方言語音特色等成分, 並現示漢語發展的可能範圍, 從而可以判斷此現象也算是韓國漢字音特有的語音變化特征。

주제어 : 漢語語音變化, 現代韓國漢字音, 韻母, 韓·中言語比較, 韻母

